

国際高麗学会 日本支部通信 (第23号)

国際高麗学会日本支部 代表 文京洙
〒543-0024 大阪市天王寺区舟橋町2-2 OICセンタービル5F
TEL 06-6763-2684 FAX 06-6763-5080
E-mail isksj@ams.odn.ne.jp HP <http://www.isks.org>

【巻頭言】

「オーマイニュース」の挑戦

高 賛 侑
(ノンフィクション作家)

その男は、小柄で痩せていた。口調は淡々とし、扇動的な主張を強弁することもなかった。しかしジャーナリストを中心とする7~80人の聴衆は、なかば呆然としながら、話に圧倒されていた。その男、呉連鎬氏(41)こそ、いま韓国の、いや世界のメディア界に革命をもたらしつつあるインターネット新聞「オーマイニュース」の主宰者である。

今年1月17日、大阪市生野区のKCC会館で催された講演会に参加した私も強烈なインパクトを受けた1人だった。最近日本語版が出版された彼の著書『オーマイニュースの挑戦』(太田出版)を読み、改めて強い感銘を受けた。

呉氏は1964年、韓国の山村で生まれた。延世大学卒業後、在野の非主流メディア、月刊『マル(言葉)』の記者となり、ワシントン特派員として米国に駐在したこともある。

しかし非主流メディア記者としての悲哀を体験した彼は、2000年2月、3名の同志と共に「オーマイニュース」を創設した。コンセプトは「市民みんなが記者」。すなわち常勤記者だけでなく、広範な市民記者が送ってきた記事もネット上に掲載する新たなメディアをスタートさせたのである。その背景には、「朝中東(「朝鮮日報」「中央日報」「東亜日報)」と呼ばれる保守言論と進歩言論の影響力の比率が8対2という現実があった。これをせめて5対5にしたいという意志が、彼をドン・キホーテ的な挑戦へと駆り立てたのだった。

彼は言う。

<インターネットが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レベルで有する革命性は…時空間の制約を受けないということだ。…(このことは)重大な意味を含んでいる。「紙新聞」からテレビにいたるまで、その時空間の制約のために失っていた双方向性を再び復元できるようになったからだ。>

「オーマイニュース」は「記事の公式を破壊せよ」という創刊モットーを掲げ、インターネットの特長を生かした大胆な試みを実践した。その1つが現場の状況を生々しく伝える中継記事だった。

2000年10月、金泳三元大統領が高麗大学で講演に招かれたとき、学生たちが正門

を閉鎖し、戦闘警察隊が周辺を取り囲んだ。記者は現場の状況を携帯電話で編集部の中継し、30分おきに記事が報道された。結局、元大統領が講演を諦めて去るまで17時間にわたって続けられた報道は、「オーマイニュース」の威力を見せつける契機となった。

「オーマイニュース」が最大の影響力を發揮したのは02年の大統領選挙だった。保守系メディアが李会昌候補を強力に後押ししたのに対抗し、「ノサモ(盧武鉉を愛する会)」をはじめとするネチズンたちは「オーマイニュース」の読者意見欄を通じて盧武鉉候補への支持を呼びかけ、ついに盧武鉉大統領を誕生させたのだった。

「オーマイニュース」はいまや3万6000人の市民記者、67人の社員を抱え、1日約100万ページビューを数え、韓国のメディア影響力において6位を占めるまでに発展した。それだけにとどまらない。昨年トルコで開催された世界新聞協会総会に呉氏が招待され、講演を行うほどに世界的な注目を集めている。

では、なぜ「オーマイニュース」がかくも画期的な成功をなし得たのか。1月の講演会で呉氏自身が分析した内容が印象深く耳に残っている。

韓国はインターネットの普及率が世界のトップレベルにある、歴史的にマスコミに対する不信が積み重なってきた、といった要因を挙げながら、最も強調したのは「韓国には準備された市民がいたからだ」ということだった。歴史的に韓国の学生・市民が多大な犠牲を乗り越えて闘い続けてきた伝統が、現在の若い人々のなかにも生きていと語る彼の表情には、市民に対する熱い信頼と誇りが浮かんでいた。

呉氏は今後の展望として、すでに国際版(英語)を開始したのに続き、遠からず日本版も立ち上げる準備を進めていることを明らかにした。はたして日本に「準備された市民」がどれほどいるのか、日増しに右傾化が進行する現状を見れば、前途の多難さが予想される。しかし状況が悪化しているからこそ、真のメディアの存在がより切実に求められるのである。

私は日本版が出現すれば、ぜひとも市民記者に登録したいと思っている。と同時に、現状に危機感を抱く人々が共に新たな挑戦へと立ち上がることを呼びかけたいものである。

[本号のもくじ]

巻頭言	高 賛 侑 (1)
[国際高麗学会日本支部特別講演会要旨]	
韓国の姓名	金 鎮 宇 (3)
[西日本地域研究会報告要旨]	
第59回 ヨーロッパの大学における韓国語教育	延 哉 勲 (5)
第60回 『済州島現代史—公共圏の死滅と再生—』をめぐって	文 京 洙 (11)
[東日本文社会科学研究会報告要旨]	
第21回 韓国の銀行業における組織再編と労働問題 —都市銀行の事例を中心に—	朴 昌 明 (14)
[科学技術部会研究会報告]	
第28回 窒化物半導体の光エレクトロニクスへの応用	崔 成 伯 (16)
訃報 / 国際高麗学会日本支部規約	(17) / (18)

【特別講演会報告要旨】

2005年6月30日(木) 18:30~20:00 OICセンター会議室

金 鎮 宇

(アメリカイリノイ大学 言語学教授)

甲南大学 客員教授)

0. 語源: 이름 < 일(il-, ilh-, 指名, 命名, 稱)+음(-um, 名詞化素)
cf. 이르다 (tell, inform), 일컫다 (call, name); 日: い-う (言)

1. 人名

1.1 由來

三國時代 以前: 姓 없었음(無)

三國時代

百濟 24 代王 餘 近肖古 (r. 346-374)

高句麗 高 長壽王 (413-491)

新羅 24 代王 金 眞興 (r. 540-576)

「摩雲嶺碑」(568)

啄部 居杜夫智 伊干

沙啄部 勇力智 迦干

地名 人名-尊稱辭 官職名

統一新羅 (668-918)

弓裔, 神劍, 元宗; 金 庾信, 崔 致遠, 金 仁問

高麗 (918-1392)

9 代王 文宗: “官吏들은 姓이 있어야 함”

李朝 (1392-1910)

金수언(1449): 막동(末童), 어리둥(幼童), 검둥(黑童), 돌히(石兒), 강쇠(剛鐵),

똥굳이(糞硬), 개똥(犬糞)

「賤名長壽」(盧 泰愚)

1910: 忠北 丹陽, 16,000 名中, 408 名(341 女+67 男)만이 固有名

『三國史記』(1145) 3 代 儒理王 -- 6 姓 下賜 (李, 崔, 鄭, 孫, 薛, 裴)

同音異姓의 發生 - 「本貫」

2000 年 人口調査

姓: 286 (比: 中 - 2,568, 日 - 10k+)

本貫: 4179 (慶州 - 87, 晉州 - 80, 全州 - 75)

最多 同姓同本 - 金海 金氏 (4,125,000 名 - 10%)

上位 20 姓 - 78.2%



上位 100 姓 - 99%

二音節姓 - 17 (南宮, 鮮于, 獨孤, 司空, 岡田 …)

稀貴姓 (100 名 以下) - 43 (介, 橋, 奈, 端, 苗, 氷, 順, 影, 長谷 …)

外來姓 - 442

< 比: 145 (골라낙콘치타, 켈랑로즈)

< 日: 139 (大田, 吉岡, 吉省)

< 中: 83 (武, 岳)

< 他 (東南亞)

1.2. 作名法

行列字 - 五行 (金 → 水 → 木 → 火 → 土 …)

金: 鎭, 鉉, 鈞

水: 洙, 浩, 泰

木: 杭, 根, 杓

火: 炯, 榮, 螢

土: 基, 均, 圭

1.3. 別名

冠名 - 成人名

字

號 - 雅名

別號

諡號 - 李忠武公

宅號 - 江南宅

法名

洗禮名

筆名

藝名

堂號 - 女號, 申師任堂

兒名

固有(한글)名: 새별(彗星), 솔(松), 그림(画), 샘(泉),

2. 地名

漢字化: 곰나루 → 熊津 (公州), 한밭 → 大田, 쇠밭 → 鐵原, 널문이 → 板門店

例外: 임실(全北) (主/戀 谷/町), 서울 (← 徐伐 ← 所夫里 ← 徐羅伐)

新羅 景德王 (757)

a. 意譯: 벌 [pəl] ‘field’ → 原 [wən] (cf. J. bara)

b. 音譯: [pəl] → 伐 [pəl], 弗 [pul], 夫里 [puril]

c. 再譯: 伐/弗 [pul] → 火 [hwa]

金富軾: 『三國史記』(1145) 「地理誌」

“景德王-*i* 地名 A-*rul* B-*ro* 改名-*ham*” (524 地名)

買忽 [may-hol] → 水城

內米忽 [nay-mi-hol] → 池城

忽 [hol] = 城 ‘castle, fort’ ; cf. MK. *kol* ‘village’ Ma. *holo* ‘valley’

買 [may] = 水 ‘water, river’ ; cf. MK. *mul*, OJ. *midu* ‘water’, Evenki. *muu*, Ma. *muke*

内米 [naymi] = 池 ‘lake, pond’ ; cf. J. *nami* ‘wave’, Ma. & Goldi *nanu*, Evenki *lomu* ‘sea’

서울 (漢陽, 漢城, 京城, 韓城, 中京, 首爾[suəər])

『東國文獻備考』 (1770) 「徐苑」[xuyuan]

3. 結語

現代人: 家族/部落의 一員 → 國際社會의 一員

1. Euphony (宥和音): *朴 石得[pak sək tuk]
2. Ambiguity (曖昧, 同音異姓): 朴 男植 = 方 男植 [pang namshik]
3. Bad meaning (惡意): 박(*bag*), 학(*hag*), 방(*bang*), 석(*suck*), 등(*dung*), 독(*dog*), 그림(*grim*), 꺾(*quack*), 「大榮」自轉車 (*Dai-yung* = ‘die young’ !)
4. Double meaning (重意): 安 慶泰 (=眼鏡 frame), 全 神周 (=電信柱), 林 信重 (=妊娠中!)
5. Romanization (로마字化):
 - a. 容易: 螢燁 (Hyoung-Youb) vs. 贊昊 (Chan-Ho)
 - b. 標準化: 李 (Lee, Yi, Yee, Ree, Li, Rhee, Leigh)

【西日本地域研究会報告要旨】

第 59 回 2005 年 2 月 26 日 (土) 17:00~19:00 O I C センター教室

ヨーロッパの大学における韓国語教育

延 哉 勲

(ロンドン大学 SOAS 教授)

Abstract

This paper surveys on the present state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at Universities in Europe. The survey shows that at present, Korean language is taught at around 30 Universities in 14 different countries in Europe, including United Kingdom, France, Germany, Denmark, Netherlands, Finland, Sweden, Bulgaria, Hungary, Czech Republic, Italy, Norway, Poland, and Rumania. The brief history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the UK,



France, Germany in particular, was also investigated in the paper. We could not gather information on Spain, Portugal, and Belgium during the present study, but Korea Research Foundation (KRF) record reports that Korean is also taught in these countries. Considering the missing information due to the lack of time and efforts, the number of Universities teaching Korean language would be higher than the present report.

핵심어 : 한국어 교육, 한국학, 유럽 대학.

1. 유럽 대학의 한국어 교육 개관

유럽 대학들의 한국어 강좌는 북미 지역 대학들에 비해서 학생 수는 적지만, 학생들이 거의 유럽 지역 학생들이란 점에서 교포들이 학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북미지역 대학들과 차이가 있다. 교육 내용에 있어서도, 단독 학위 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들에서는 상당히 깊이 있는 교육(한자 및 중세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1년 동안 한국 대학에서 교환/연수 과정을 밟게 하는 대학들도 많이 있다. 또 많은 대학들에 한국학 학사 및 석사, 박사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유럽 대학에서의 한국어 강좌는 조금씩의 정도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한국학 전공을 위한 읽기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외국어 교육에서 의사소통 중심의 교육 방법이 강조되고 있지만, 유럽 대학의 학위과정으로 개설된 한국어 교육은, 강사 및 강의 시간의 부족, 한국학 전공 서적의 독해를 위한 현실적 필요 때문에 당분간 읽기 중심의 교육이 될 것이다. 유럽 대학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 교재는 대부분 대학 자체적으로 개발한 교재나 신문 기사를 발췌한 유인물 등을 사용하고 있고, 한국 대학과 교환/연수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대학들은 한국 대학 교육과의 연계성을 위하여 한국 대학 출판 교재도 병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대학 교재들에 대한 공통된 불만은 구조에 대한 설명의 부족과 부정확성에 대한 것이다. 또한 내용이 외국 대학생들의 다양한 그리고 성숙된 지적 관심사를 충족하기에 부적격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어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강사진은, 영국, 프랑스, 핀란드 등에서는 한국인 전임 교수들에 의해서, 그리고 독일과 그 밖의 유럽 대학에서는 현지 교수의 책임 아래 한국인 시간 강사나 한국에서 파견된 교수들의 도움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많다.

현재 유럽(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 제외)지역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대학은 대략 13 개 나라, 30 여 개 대학으로 조사되었다. 각 나라별로 한국어를 교육하는 대학을 정리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영국: 런던대학 쏘아즈(SOAS), 셰필드, 옥스퍼드, (뉴카슬, 덜험) 대학

프랑스: 국립동양어대학, 파리 7 대학, 리용, 보르도, 라-로셀, 루앙 대학, 고등사회과학연구원

독일: 함부르크, 베를린-자유, 보훔, 본, 튜빙겐 대학과 하이델베르크, 레겐스부르크 대학

덴마크: 코펜하겐대학

네델란드: 라이든대학

핀란드: 헬싱키대학

스웨덴: 스톡홀름대학

불가리아: 소피아대학

헝가리: 무역대학 (College of Foreign Trade)

체코: 까렐(찰스) 대학

이태리: 나폴리대학, 베니스대학, 로마대학 (라사피엔자)

노르웨이: 오슬로대학

폴란드: 바르샤바대학

2. 나라별, 대학별 한국어 교육 현황

2.1. 영국

현재 영국에서 한국학을 전공으로 선택하여 연구하고 학위를 수여하는 대학은 런던대학, 셰필드(Sheffield) 대학, 옥스퍼드대학의 셋이며, 이 밖에도 뉴카슬(Newcastle)대학, 덜햄(Dulham)대학, 리즈(Leeds)대학 등에서 한국어 강좌를 개설해 왔지만 현재 재정 문제로 중단의 위기에 놓여 있다. 영국에서의 한국학 연구는 북미 대학들에 비해서 그 숫자는 열세이지만, 한국학을 전공으로 한국학 학위를 수여한다는 점에서 더 심도 있는 연구와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고, 학생들도 거의 영국 및 유럽 학생들이란 점에서, 북미 대학들과 차이가 있다.

영국에서의 한국학 및 한국어 교육은 1940 년대에 런던대학교 아시아 - 아프리카대학(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줄여서 SOAS(쏘아즈))에 한국어 강좌가 설치되면서부터 시작된다. 90년대 이후 한국 기업들의 영국 투자가 늘고 한국의 경제력이 커지면서 한국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것으로 변하고 있다. 특히 1989년 쏘아즈에 한국학 학위 과정이 생기고, 스킬랜드(Skillend) 교수 혼자서 외로이 지키던 한국학 연구소의 교수진이 5명으로 늘어나면서, 지역학으로서의 한국학 연구도 그 열기를 더해 가고 있다. 한국학 강좌가 개설된 런던대학, 셰필드대학, 옥스포드대학, 뉴카슬대학, 덜햄대학, 리즈대학 등의 한국학 전문가들 외에도 영국박물관(British Museum)과 V&A 박물관(Victoria & Albert museum)의 한국전시관, 영국도서관(British Library), 영국외무성(Foreign & Common Wealth Office) 등에도 한국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이 포진해 있다. 이렇게 근년에 접어들어 영국에서 한국학의 열기가 더하고 각 대학에서

한국학 강좌를 개설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 데에는 그동안 한국학술진흥재단(Korea Research Foundation)과 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의 후원이 큰 몫을 차지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지만 무엇보다도 세계사 속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런던대학교 소속의 쏘아즈(SOAS)는 1906년에 처음 세워진 학교로, 원래는 제3세계 및 식민지의 효율적 경영을 위하여 외교관, 국가 공무원이나 정보원 등을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60년대 이후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적 성장과 국제 사회의 다변화 등으로 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정부로부터 특수 지원금(special factor funding)을 받고 발전하여 지금은 아시아-아프리카 지역학에 관한 한 자타가 공인하는 유럽 제일의 연구 센터가 되어 있다.

쏘아즈에 한국학 강좌가 처음 개설된 것은 1940년대 후반으로 알려져 있는데, 1953년에 스킬렌드(William Skillend) 교수가 유럽에서는 처음으로 한국학 전임 강사로 취임하면서 정식 시험과목으로 채택되었다. 그 후 중국학이나 일본학의 부진공으로 운영되다가 1989년부터 단독 학위과정이 생기고 전임교수진도 5명으로 늘어나면서 명실공히 영국 제1의 한국학 연구 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학부과정에서 한국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숫자는 학년당 10여명 정도로, 중국학이나 일본학에 비하면 (학년당 약 35-40명) 적지만, 매년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학을 전공하는 학생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역사, 한국 사회와 문화, 정치 등을 이수하게 되어 있다. 한국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쏘아즈에서 집중적인 한국어 교육을 받은 후, 2학년 때 반드시 고려대학교에서 실시하는 언어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해야만 졸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2학년 과정 1년 동안은 한국에서 수학하고 돌아온 학생들은 3, 4학년 2년 동안 한국 산문 강독 (신문, 소설, 수필 등)과 한국어의 구조와 역사,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관련된 논문 작성 등 심도 있는 언어 문화 교육을 받고 졸업하게 된다.

세필드대학에 한국학 과정이 설치된 것은 1979년 산학 재단으로부터 5년간의 기금을 받은 것이 계기가 되었다. 1987년에 연세대학과 학생 교류협정을 체결하고 1990년에 처음으로 학위과정을 개설하였다.

세필드대학에서 한국학 학위 과정을 관장하는 곳은 동아시아학 연구소(School of East Asian Studies: SEAS)이다. 원래 한국에 선교사로 파견되었다가 한국학과 인연을 맺고 한국 종교 연구가 전공인 제임스 그레이슨 교수가 한국학 연구소의 소장으로 학위과정을 이끌어 나가고 있고, 한-영 비즈니스 관계 연구가 전공인 주디쓰 체리 교수가 한국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다. 한국어 강의는 리즈대학에서 한국 영화에 대한 연구로 사회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향진 교수가 담당하고 있고, 주디쓰 체리 선생과 김도미선생도 초급과 중급의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옥스포드대학의 한국학 연구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지원으로 1994 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아직 한국학 단독으로는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없고 중국학이나 일본학의 선택 과목으로 가르쳐지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1996 년 처음으로 한국학 석사 학위를 받은 학생이 생겼고 대학 측에서도 학부 과정의 한국학을 독립된 학위 과정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제정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어 강좌는 한국어국제교류재단의 후원으로 지영혜 선생에 의해 운영되고 있고 석사 과정의 한국 역사 및 문학의 한국어 강독은 하와이대학에서 학위를 한 제임스 루이스 교수가 담당하고 있다.

1991 년 뉴카슬대학이 경희대학과 교류협정을 맺으면서 학생들은 한국어를 부전공이나 복수전공 중의 하나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1991 년에는 한국 학술진흥재단이 그리고 그 후부터 1996 년까지는 국제교류재단의 후원으로 한국어 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뉴카슬대학의 한국학은 아직 단일 전공으로는 선택할 수 없고 정치학이나 다른 동아시아학과와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의 하나로 선택할 수 있는데, 현재는 제정 문제로 중단된 상태이다.

델협대학교에도 1997 년부터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으로 한국어 강의가 시작되었지만, 대학 제정 문제로 동아시아 학과가 문을 닫으면서 한국어 강좌도 중단된 상태.

영국에서는 이 밖에 리즈(Leeds) 대학이나 캠브리지대학 등에서 학생들의 수요와 여건에 따라 한국어 강좌를 개설해 왔으나 현재는 중단된 상태이다. 또 쏘아즈의 언어교육원(Language Centre)에서는 학위 과정과는 별도로 영국 외무성(FCO: Foreign and Commonwealth Office), 국방성(MOD: Ministry of Defence)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강좌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강좌를 개설하고 있는데, 학위 과정보다 학생수가 훨씬 많은 편이다.

2.2. 프랑스

프랑스의 국립동양어대학은 1795 년 외교관과 통역관을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1959 년 이옥 선생이 강의를 시작했는데, 1969 년 파리 3 대학교에 소속되었다가 1985 년 분리, 독립하여 단일대학이 되었다. 여기에는 학사와 석사 과정만 개설되어 있고 박사 과정은 아직 개설되지 않았다. 앙드레 파브르 교수가 학과장으로 있다가 몇 년 전 은퇴하였고 지금은 심승자 교수가 강의를 담당하고 있다.

파리 7 대학에는 1970 년 학제 개편 때부터 한국학과가 분리 독립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고, 최승언(어학) 교수가 학과장을 맡고 있다. 이 대학에는 학사, 석사, 박사 학위가 모두 가능하다.

1983 년부터 리용 3 대학에도 한국학 강좌가 개설되었고, 1988 년부터는 교양과정에 한국어 전공이 설치되었다. 이진명 교수가 책임자로 있다.

프랑스 고등사회과학연구원 안의 한국학 연구소에는 한국어 강의가 따로 개설되어 있지는 않지만, 1989 년부터 한국학 박사과정이 개설되어 한국학

연구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알렉산더 기예모즈 교수와 알랭 텔리첸 교수가 활약하고 있다.

이 밖에도 학위 과정은 아직 개설되지 않았지만, 보르도 3 대학에도 1986년부터 한국어 강좌가 시작되었고, 파리에서 150킬로 떨어진 르아브르(Le Havre) 대학에도 1989년부터 한국어 강좌가 설치되어 학부 1-2학년 수준의 한국어 강의를 샤발-최 은숙 교수가 담당하고 있다. 또 파리 서남쪽의 라 로셸대학 (Universite de La Rochelle)에도 2002년부터 동양학부에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어 세렐-라키에 교수(파리 7 대학 박사 출신)가 강의를 담당하고 있고, 파리 서쪽의 루앙대학 (Universite de Rouen)도 한국학술진흥재단 지원으로 2001년부터 한국어 강의를 시작하였다.

프랑스에서는, 국립동양어대학 등에서 한국어를 수강하는 학생들의 수효는 예전에 비해 줄어드는 반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던 한국어 교육이 파리 이외의 대학들로 점차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3. 독일

독일은 전통적으로 한국학의 역사가 깊고, 통일 전까지는 구동독의 베를린-훔볼트대학 등에서 김일성대학을 졸업한 우수한 연구자를 많이 배출해 왔다. 그러나 통일 후 베를린-훔볼트대학 뿐만 아니라 튜빙겐대학 등의 한국학과가 재정문제로 중단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유럽의 한국어 교육이 대부분 그러하지만, 독일의 한국어 교육은 특히 구조분석 위주의 전통을 유지해 오고 있는 듯하다. 함부르크대학의 자세 교수와 그 동료 제자들의 중세어 연구도 그러한 전통을 보인다. 보훔대학교의 한국학 과정은 마리온 에거트 교수의 책임 아래 이루어지고 있고, 보훔에는 이 밖에도 정부에서 운영하는 언어교육원이 있는데 여기서도 한국어를 가르친다고 한다. 한국어는 3주 과정으로 일년에 4-5번 개설된다.

본 대학교의 한국어 과정은 주로 독-한 번역 과정 위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 후버 교수와 성상환 교수가 강의를 맡고 있다. 이 밖에 한국어 강좌가 설치된 곳으로 하이델베르크대학교, 레겐스부르크대학교 (책임자: Dr. Young Ja Beckers-Kim), 뒤스부르크(Duisburg) 대학 (방학 때만 한국어 집중 코스를 제공) 등이 있다.

2.4. 그 밖의 나라들

유럽 한국학 대부 중의 하나인 프리스 포스 교수로부터 시작해서 오랜 한국학 연구의 전통을 자랑하는 네덜란드의 라이든대학교는 왈라반 교수와 쿤드케스터 교수의 노력과 연구로 꾸준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일찍이 알타이어학과 한국어 계통 연구에 관심을 가졌던 랍스테트 교수의 영향으로 시작된 핀란드 헬싱키대학의 한국학 연구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 고송무 선생의 노력과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후원으로 꾸준히 한국학 강좌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스웨덴의 스톡홀름대학이나 덴마크의 코펜하겐대학도 규모는 크지 않지만, 한국계 입양아 출신 학생들의 관심에 힘입어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체코의 찰스대학이나 폴란드의 바르샤바대학은 일찍부터 북한에서 유학한 학자들에 의해 탄탄한 한국학 전통을 유지해 오고 있는 대학들이다. 지금은 블라디미르 부첵 교수(어문학)와 로무알드 후스차 교수(어학)가 각각 책임을 맡고 있다. 요즘 한국학 연구가 활기를 띠고 있고, 많은 성장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나라로는 이태리를 들 수 있 있다.

1990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후원으로 나폴리 동양학대학교의 한국학 연구와 교육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마오리찌오 리오토(Maurizio Riggio)는 1990년부터 나폴리 동양학대학교 강사로 한국어와 한국문학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1997년 이태리 정부 공개채용을 거쳐 부교수로 임명되어 현재 재직 중이다. 현재 이탈리아의 나폴리 동양학대학교는 한국학 전공으로 박사 학위(학·석·박사학위 포함)를 취득할 수 있는 유일한 대학교이다. 몇 년 전부터 베네치아대학교, 로마의 라사피엔짜대학교에서도 한국학 강좌가 개설되었으나, 아직까지 정교수는 없는 상태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베네치아대학교에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지원으로 빈첸짜 두르소(Vincenza D'Urso) 박사가 강의를 하고 있으며, 2000년부터 라사피엔짜대학교에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으로 안토네타 브루노(Antonetta Bruno) 박사가 계약 교수 자격으로 한국학 강의를 담당하고 있다.

헝가리는 부다페스트 경제 전문대학인 무역대학에서 1989년 이후 지금까지 오스바쓰(Gabor Osvath) 박사의 지도로 한국어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쉽게도 현재 독립된 학과로 운영되지 못하고 동양 국제관계와 재교육 센터에 소속되어 언어 교습 위주로만 운영되고 있다.

이 밖에도 포르투갈과 벨기에 등에도 한국어 강좌를 부정기적으로 개설하는 대학이 있다. 또 루마니아의 부카레스트대학과 폴란드 포즈난의 아담미츠키에비츠대학 등에도 한국 국제교류재단의 지원으로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어 있다고 하고, 아일랜드의 트리니티대학에도 한국어 강좌는 아니지만 한국 사회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파견되어 강의를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3. 맺음말

유럽 지역 대학들의 한국어 교육의 역사는 매우 길다. 노르웨이의 오슬로대학(2000년 개설)이나, 이탈리아, 헝가리, 불가리아 등을 제외하면 그 역사가 1960년대 길게는 194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학생 수는 그리 많지 않지만, 대부분의 대학에 전공과정으로 개설되어 있어 심도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한국 대학과의 교환 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곳이 많다. 구동독이나 체코, 폴란드 등의 나라에서는 남한과의 외교 관계 수립 후, 남북한 언어 차이에서 오는 혼란을 겪기도 하였으나, 남북한 언어의 균형 있는 교육 내지는 한국어 교육 쪽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초급 과정의 교재는 각 나라의 특성에 맞는 교재와 한국 대학에서 출판된 교재를 병용하는 대학들이 많았고, 중급 이상의 과정에서는 각 대학

별로 자체 개발한 교재를 사용하는 대학들이 많다. 한국어 교수진은 영국, 프랑스, 핀란드 등은 한국인이 많았지만, 독일 등 그 외 유럽 지역은 현지인 교수의 책임 아래 한국인 시간 강사들이 강의를 담당하고 있다. 강사진의 전공은, 언어학이나 한국어 교육을 전공한 사람보다도 역사나 정치 등 한국학을 전공하는 학자들이 한국어 강의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대학 한국어 교육에 대한 참고논문>

- 고송무. 1991. 핀란드와 카작스탄에서의 한국말 및 고려말 교육. 교육한글 4호.
- 김중대. 1988. 도이칠란트에서의 한국어 교육과 연구 현황. 한글 201.202.
- 보야코프스카, 크리스티나. 1991. 폴란드에서의 한국어 교육. 새국어생활 1-2. 부책, 블라디미르. 1991. 체코슬로바키아에서의 한국어 교육에 대하여. 교육한글 4호.
- , 1991. 체코에서 한국학이 걸어온 길. 새국어생활 1-2.
- 브로홀로스, 홀머. 1991. 독일에서의 한국어 교육: 구동독에 중점을 두고. 새국어생활 1-2.
- 성광수. 1995. 해외 한국어 교육의 몇 가지 문제. 이중언어학회지. 제 12호.
- 송향근 2000. 핀란드의 한국어 교육과 한국학 연구. 국어국문학회 발표요지.
- 스킬런드. 1988. 런던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육 (영문). 한글 201.202.
- 연재훈. 1997. 영국에서의 한국어 교육과 연구 현황. 교육한글 10호.
- , 1999. 영국에서의 한국학 연구와 교육 현황: 한국어교육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76호.
- , 2001. 유럽 지역 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육 현황. 이중언어학. 제 18호.
- 이진명. 1991. 프랑스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역사적 배경과 현황. 새국어 생활 1-2.
- 자세, 베르너. 1991. 독일 보훔 대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 새국어 생활 1-2.
- 정도상. 1997. 핀란드에서의 한국어 연구와 한국어 교육. 교육한글 10. 한글학회.
- 조승복. 1988. 스웨덴에서의 한국어 교수와 연구 현황. 한글. 201.202.
- 프로스트. 1988. 프랑스에서의 한국어학 과정. 한글 201.202.
- 허용. 1997. 해외동포 한국어 교육지원과 해외 한국학과 현황에 대한 기초 연구. 한국방송대학교. 방송통신교육연구소 연구보고 96-7.
- 헤르만. 1991.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동독)에서의 한국말 교육과 교재에 대하여. 교육 한글 4호.
- 호이슬러(Haeussler, Sonja). 1996. 시간의 변화를 통하여 본 베를린 훔볼트 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육. 한국말 교육 제 7호.
- 후스차/오가택-최. 1988. 폴란드에서의 한국어 교육 현황. 한글. 201.202.
- Karlsson, Anders. 1996. Theory and Practice - Discrepancies in Supply and Demand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Sweden. 한국말 교육 제 7호.

* 이 밖에 한국국제교류재단 홈페이지 ‘국가별, 지역별 한국학 역사와 현황’이 많은 참고가 됨.

第60回 2005年5月21日(土) 16:00~18:00

大阪教育大学天王寺キャンパス

『済州島現代史—公共圏の死滅と再生—』をめぐって

文京洙

(立命館大学教授)

この研究の課題は、「四・三事件」以降、今日にいたる韓国・済州島の歩みを“公共圏”という枠組みを通して考えることにある。ここで「四・三事件」とは、米軍政下にあった1948年4月3日の済州島における武装蜂起に端を発し、その武力鎮圧の過程で3万人近くの島民が犠牲となった現代史上の悲劇である。一方の公共圏とは、一言でいえば、日常生活世界に根ざす、公共のことがらをめぐる自由で開かれたく議論の場>ということであり、「協議的政治」とか「討議的民主主義」と呼ばれるような、90年代以降、現代思想の一角を占めるようになった論理や見方を下敷きにして



いる。序章では、このような本研究の課題を示すとともに、おもに J・ハーバマスの『事実性と妥当性』に依拠して、公共圏についての私なりの解釈を示し、本研究の論述を方向づける枠組み・方法論の提示とした。さらに、済州島現代史を初め、本研究に関連する諸分野の先行研究を概観し、本研究の占める位置を明らかにした。

第1章では、第二次大戦直後から四・三事件にいたる済州島の動向を朝鮮半島全体の文脈の中で検討した。従来、四・三事件に関する研究は大雑把に「共産暴動説」と「民族解放運動説」に二分されるが、本研究ではこれを済州島民の自治への志向という観点からとらえ、済州島の「人民委員会」を、権力の空白期という特異な状況の下で成立した公共圏の文脈で位置づけた。四・三事件は、そこに成立した公共圏を、これを支えた人びとの自立的で自由な精神もろとも打ち砕いた悲劇でもあった(第1章第四節 二「済州島社会の屈折——公共圏の死滅」)。

第2章および第3章では、公共圏の「再生」の前提となる、50年代~80年代の済州島社会の変貌を戦後韓国の変化をふまえて検討した。第2章では主に60年代の高度経済成長にともなう韓国社会の変化を都市的な生活意識・様式の形成という観点から検討した。観光開発や新たな換金作物の栽培などによる済州島社会の変化、さらには道路・通信網など社会資本の整備は、済州島の経済社会を半島部のそれに組み入れることになった。この間の済州島社会の変容は、生活水準、教育、情報といった公共圏の再生を支える下部構造をつくりだす一方、観光開発は本土の財閥資本による済州島経済への

浸透・支配をもたらした。

第3章では、市民社会の形成や社会運動という観点からこの間の韓国および済州島社会の変化が語られる。80年光州事件は、オーソドックスな「マルクス主義」の復権を含む社会運動・理論の急進化、いわゆる「運動圏」の潮流が形づくられる転機となり、そうした時代の潮流は済州島社会にも影をおとす。とりわけ、87年の民主化以後は済州島においても「市民社会の制度的核心」(ハーバマス)をなす、国家や資本から自立した社会運動組織や市民団体が噴出する。本研究では、そうした「連帯的結合」を、90年を前後する時期の済州島における公共圏の新たなコミュニケーション循環の結節点として位置づけ、この時期の社会運動や住民・市民団体に身を投じた多くの人びとへの聞き取り調査を試みた。さらに、この時期の地方言論の自律的再編と、91年に30年ぶりに成立する地方議会を公共圏の制度的要件の問題として検討した。

本研究は、以上の変化を前提とした公共圏「再生」の済州島での画期を90年代初めの「済州道開発特別法」をめぐる議論と運動の噴出に見出している。

第4章では、社会運動・団体の関係者や言論人への聞き取り、さらに当時の集会のチラシや新聞のスクラップ、会議議事録などをもとに、90年を前後する時期の住民運動の再現を試みた。第4章第2節「開発特別法問題の遺産と公共圏」は、本研究のいちおうのまとめでもあり、直接その一部を以下に引用しておく。

「“開発特別法”が提起される時点で、行政の側の、家父長的とも表現されるべき権威主義的体質が、「六月抗争」にともなう民主化(87年)や塔洞での住民の異議申し立て(88年～90年)にもかかわらず、拭い去られていなかったことは明らかである。済州島の住民は、権威に対して羊のように従順であることを生存の戦略としてその身に叩き込んできたが、行政側のこの島民たちを見る眼差しも、四・三事件という逸脱を犯した罪びとに対するそれ、もしくは、せいぜい自治能力を欠いた被保護者に対するそれであり、そういう高みにたって「特別法」を済州島民に施される特惠と考えていたのである。(中略)しかし、60年代以来の済州島の開発で味わった島民の疎外感や不満は、道や地元国会議員の想像をはるかに超えるものであった。とりわけ、「外地人」による観光開発や土地投機の進んだ80年代では、開発の帰結は農民たちの目に明らかとなっていた。巨大ホテルやゴルフ場建設で土地を囲い込まれた農民たちは行き場を失い、開発利益や観光収入の大半は本土に吸い上げられていった。道当局への国政監査でも国公有地を除く半分以上の土地が、「外地人」の手に落ちていていることが明らかとなった。近代化と民主化によるコミュニケーション構造の刷新は、農民たちの不満や危機感に「異議申し立て」の具体的な形を付与した。

公共圏の質や成否は、そういう農民たちを始め懸案とされる事項の当事者が、十分な情報と自由な意思をもってそこに引き入れられているか、どうか、ということに大半はかかっている。「開発特別法」制定の出発点で、行政側が旧時代的な発想と手法でこれに臨んだことは、済州島での公共圏の活性化を考えるうえでむしろ幸いであったかもしれない。開発にまつわる済州島民の不満と行政側の侮りとのギャップが大きく深いものであったことが、逆に、農民たちを日常の生活世界から誘い出して大挙して地域全体の将来をめぐる公共的な議論の場に招き入れる契機となった。

そして、そういう生活者を公共的議論の場に引き入れていく上で重要な役割を演じたのが、「汎道民会」に結集した社会運動団体であった。(中略)公共圏という考え方が重視するのは、人びとの多様性(複数性)を前提に民主的な討議を通じて形成される意見

や意思(間主観性)であり、もし運動圏勢力(社会運動団体)がいたずらに理念(大きな物語)に固執すれば、公共圏は水をさされ、悪くすれば瓦解しかねない。だが、済州島の社会運動は、ソウルのようなマンモス都市での運動が陥りがちな、理念や目標設定の抽象性を回避しえた。人口 50 万余りの狭い島社会にあつて運動圏の若いインテリや活動家たちも、韓国社会全体にはどうも消し得ない、島社会固有の共同性や具体性に深く根づいていた。済州島の社会運動は、そういう共同性や具体性をよりどころに、地域社会全体にかかわる問題を主題化し、主題にまつわる議論をとりまとめ、的確な課題設定とその解決に必要な役割を引き受け、新しい情報を提供し、悪しき論理の底意を暴き、共感を集め議会や政府に働きかけ、さらには、そういう活動と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全過程を通して、権威主義時代以来の価値の組み替え、もしくは対抗的コード(メルッチ A. Mellucci)の創出に貢献したと言える。

塔洞埋め立てや「特別法」をめぐる台頭した済州の社会運動は、解放直後の人民委員会になぞらえることができるかもしれない。「汎道民会」も、人民委員会と同じように、済州島社会に成立した公共圏の一翼をになうと同時に、それ自体が一つの議論の場＝公共圏であった。だが、解放直後の人民委員会は、特異な権力の空白期につかの間の夢のように成立した公共的討議の空間であった。当時では、自律的な問題提起や討議の主体となるメンバーは限られ、近代教育を中心とする社会化・合理化の水準も低く、なによりも公共圏を安定化させる憲法的な前提や制度インフラを欠いていた。

人民委員会の時代から 40 年の歳月をへだてて再生した公共圏は、その質や基盤を大きく変えていた。民主化によって自由な議論を阻んでいた多くの法規が取り除かれ、言論が自律して適切な情報提供と論点形成に貢献し、大学教員など専門家集団が賛否両論の根拠を示し、地方議会が意見を集約し、公聴会、市民団体、フォーラムなど公共的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多様な媒体が機能する中で、十分に尽くされた提案・情報・根拠の合理的処理の程度は飛躍的に高まったといえる。

小さな島社会が「特別法」をめぐる討議に費やしたエネルギーは実に巨大であった。(中略)法案の確定までに七度もの法案修正があつたことが物語るように、公共的な議論を通じた再調整や再規定のプロセスが繰り返された。

さらに、本章では、こうした公共圏での討議から導き出された意見や意思が法治国家の制度化された意思決定にくわえた圧力の大きさを、開発特別法の当初試案と国会で確定した特別法の内容を比較しつつ明らかにした。

第5章は、いわばエピローグであり、90 年代以降、今日に至る済州島社会の動向を、2000 年「済州四・三事件真相究明及び犠牲者の名誉回復に関する特別法」および、2001 年「国際自由都市特別法」制定への歩みを軸に検討した。この間の民主化の進展は、四・三事件の問題解決の端緒となる特別法の制定、および真相究明に基づく大統領の公式謝罪(2003 年)を導いたが、90年代以降のグローバル化は済州島社会の公共圏に新たな変質や萎縮をもたらしている点を指摘した。第二次大戦直後の済州島における公共圏の生成と死滅→90 年代初めの再生→90 年代以降の変容、と推移した済州島現代史の流れをあらためて総括し、現在の済州島社会が新しい岐路にあることを示した

【東日本文社会科学研究会報告要旨】

第21回 2005年7月9日(土) 16:30~18:30
大阪経済法科大学 東京麻布台セミナーハウス 小研究室

韓国の銀行業における組織再編と労働問題

—都市銀行の事例を中心に—

朴昌明

(駿河台大学法学部専任講師)

I. はじめに

<韓国銀行業界の組織再編>

- * 経済危機以降、銀行間の競争が激化
- * IMF、通貨危機を招く原因となった金融産業に対する構造改革を強く要求
→M&Aが推進され、組織再編、大規模な人員削減、業績管理の強化などが実行

<報告の目的・構成>

経済危機以降の韓国銀行業界におけるM&Aによってどのような労働問題が発生しているのかについて、①雇用の不安定化、②人事・報酬制度の問題、③業務量・労働時間の増加、④ストレス・人間関係の問題から検討を行うものである。

II. 研究方法**① アンケート調査**

- 都市銀行の職員を対象にしたアンケート調査
- 配布総数 400 部、有効回収数 248 部(有効回収率 62.0%)
- 金融産業の上級労組(単一産別)である全国金融産業労働組合傘下の都市銀行組合支部に属する組合員が中心
 - ・KM、JT、SH、HM、WR、CH、WF、JI 銀行支部が協力
 - ・うち KM、と JT は KM 銀行に属する複数労組
- 実施期間:2004年3月

② インタビュー調査

- 全国金融産業労働組合の上級幹部(政策局)1名
- KM、JT、SH、HM、CH、WF 銀行支部 専従幹部 各1名

③ 文献調査

政・労・使の一次資料を中心とした文献収集・分析

III. 銀行再編により発生した労働問題**1. 雇用の不安定化**

<正規職の削減>

- * 金融構造調整に伴う大規模のリストラで銀行職員数が急激に減少
- * 銀行職員の雇用不安が拡大

<非正規職の増加>

- * 金融産業における非正規労働者の増加

- * 非正規職のほとんどが女性
- 2. 人事・報酬制度の問題
 - * 年功主義的なモデルから成果主義を重視するモデルへと移行させようと模索する動き
 - －職場に対する業績管理が強化
 - －集団成果給は導入されているが個人成果給はまだ導入されていない銀行が一般的
 - ・銀行職員は、評価・処遇の成果主義化を重視すべきと考えている場合が多い
 - ・労組は、個人成果給の導入に反対(理由:客観的評価の欠如、職員の組織力悪化)
 - * 合併による人事成果上の不利益:合併による報酬・職位等が切り下げ
- 3. 業務量・労働時間の増加
 - * 経済危機直後の大規模な雇用調整によって労働時間が増加、サービス残業が多発
 - * 2002年から完全週休二日制が実施され始めたにもかかわらず、銀行の業務量・労働時間が増加、過労死も発生
 - * 業務内容や作業方法が変更された場合、それらに関する再学習が必要なため労働時間をさらに増加(特に電算システム)
 - * 合併によって他行であった職員同士が人事異動等によっていっしょに働くようになると、それぞれの組織の作業度や労働強度の違いを感じ、組織問題が発生
- 4. ストレス・人間関係の問題
 - <「弱者」と「強者」の合併の場合>
 - * 合併後人事やシステムの面で「弱者」となった側の銀行出身者の多くがアイデンティティの喪失感を体験、「強者」側の銀行出身者に対する劣等感や不信感、敵対意識が発生(特に人事の問題)
 - <「強者」と「強者」の合併の場合>
 - * 対等合併では人事・システム等をめぐり「強者」同士の職員によって「労・労」葛藤が深刻化

付記

本報告にあたっての研究調査は、トヨタ財団の研究助成と関西学院大学産業研究所、韓国労使問題協議会、全国金融産業労働組合の協力を通じて行われたものである。上記の各団体に心から感謝を申し上げたい。

参考文献

英語文献

- ILO (2001) *The Employment Impact of Mergers and Acquisitions in the Banking and Financial Services Sector*, Report for Discussion at the Tripartite Meeting on the Employment Impact of Mergers and Acquisitions in the Banking and Financial Services Sector, Geneva.
- Lee, C. & Kitay, J. (2001) "Changing Employment Relations in the Banking Sector:

The Case of Korea”, in R. Blanpain, *The Impact of Globalisation on Employment Relations*, Kluwer Law International.

日本語文献

朴昌明(2003)「経済危機以降の韓国企業における人的資源管理の変化」『関西学院商学研究』第53号(9月)。

——(2004)『韓国の企業社会と労使関係』ミネルヴァ書房。

——(2005)「経済危機以降の韓国における銀行労働:銀行の M&A に伴う労働問題を中心に」『労務理論学会誌』第14号(3月)。

韓国語文献

銀行監督院『銀行経営統計』各年度。

全国金融産業労働組合(2000)「金属産業雇用構造の変化と展望」。

——(2003a)『金融構造調整の評価と今後の金融政策の方向』。

——(2003b)『金融産別共同労報』第5号(2月)。

韓国非正規労働センター、全国金融産業労働組合(2003)『金融産業非正規労働者の実態と組織化方案』。

【科学技術部会研究会報告】

第28回 2005年3月12日(土) 17:00~18:30 OIC センター会議室

窒化物半導体の光エレクトロニクスへの応用

崔成伯

(千葉大学工学部 電気機械工学科助手)

窒化物半導体は窒素をベースとした化合物半導体の一種です。近年、UCSB(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の中村教授(以前は日亜化学工業)で有名になった材料系で現在信号機や“Blu-ray disk”で知られる高密度記録 DVD 用光源として用いられている青紫外域発光ダイオード、レーザダイオードの主成分です。つまり窒化物半導体の研究開発によって今まで実現できなかった高効率の青色発光ダイオードなどが実現できたわけです。私の研究は同じ窒化物半導体である窒化インジウム(元素記号で書くと InN)が主なターゲットです。従来の青色発光素子などは窒化ガリウム(GaN)が主成分ですが、窒化ガリウムと窒化インジウムを合わせることで(つまり、InGaN といった三元混晶)窒化物半導体の持つ光の波長が青紫外(波長は約~400nm)域から緑、黄、赤、赤外(1800nm 程度)と変化することが可能であるという結果が近年報告されています。このような半導体材料は他になく、窒化物半導体は非常に広い光波長をカバーできる材料として非常に魅力があります。自分の研究はこの比較的新しい材料である窒化インジウム(以後 InN)の結晶成長とデバイス化に向けた基礎的研究です。発表ではこの窒化インジウムを用いて何を狙うのかと実際の研究内容、現状についてお話

します。以下はもう少し詳細に研究背景を書いたものです。興味があれば読んでみてください。

窒化物半導体は、伝導制御が可能なワイドバンドギャップ半導体、巨大バンド不連続性のヘテロ接合形成、歪電気効果による高い2次元電子密度形成、高い電子飽和速度、高い絶縁破壊電界強度、耐高温度等の特性を有する上に、環境にやさしい材料であるなど多くの優れた特徴を有している。中でも窒化ガリウム(以後 GaN)は 3.39eV (366nm) と非常に高いバンドギャップエネルギーを有し、またガリウムと同じ 3 属元素であるインジウム(In)やアルミニウム(Al)を添加した三元混晶は青紫外光域をカバーする材料系として、現在実用化されている青色発光ダイオードや高密度記録用光源である青紫半導体レーザーなどの様々な分野で研究が行われている。一方、同じ窒化物である窒化インジウム(以後 InN)は他の窒化物に比べて研究が大幅に遅れていた。それは InN の解離温度が他の窒化物と比べて極めて低く、また窒素分子の平衡蒸気圧が高いため、成長温度が GaN に比べて低く、高品質な InN 結晶の成長が困難であったためである。しかし、近年成長技術の進歩により、比較的高品質な InN 結晶の成長が可能となり、結晶品質の向上とともに InN の基礎物性についても新たな研究成果が多数報告されている。中でも InN のバンドギャップエネルギーは従来報告されていた 1.9eV ではなく 0.65eV(1.9 \cdot m)付近であるという興味深い報告がある。つまりこの結果を踏まえると InN を含む窒化物半導体は青紫外域の短波長領域から赤外域までの広範囲な光領域をカバーできる半導体材料であるといえる。本研究では高品質 InN 単結晶の成長と近赤外域光デバイスを目指した量子構造の作製について報告する。

<訃報>

■国際高麗学会日本支部 顧問 張年錫先生

2005年6月23日 永眠

<学会での略歴>

1990年8月-1994年8月 国際高麗学会 科学技術部会 委員長

1994年8月-2002年7月 国際高麗学会 副会長

1994年8月-1997年11月 国際高麗学会 日本支部 代表

1997年11月- 国際高麗学会 日本支部 顧問

■国際高麗学会日本支部 科学技術部会 委員長 高泰保先生

2005年6月28日 永眠

<学会での略歴>

1994年11月- 国際高麗学会 科学技術部会 委員長

遅ればせながら喪心よりお悔やみ申しあげますとともに、故人のご冥福をお祈り申しあげます。

国際高麗学会日本支部 会員一同